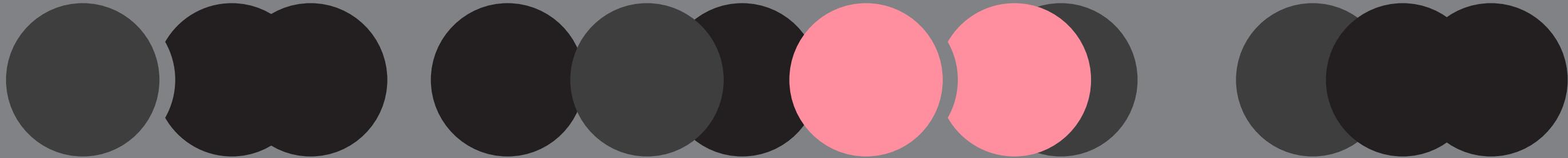


gmoma.ggcf.kr



- gmoma.ggcf.kr
- facebook.com/ggmoma
- instagram.com/gyeonggimoma
- blog.naver.com/gyeonggimoma



2017 경기도미술관 교육자료집 2/2권

가족 보고서 _ 라운드테이블

원

2017
 경기도미술관
 교육자료집

2/2권

가족 보고서 _
 라운드테이블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경기도미술관
 교육프로그램

—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
 가족.
 보고서.
 라운드테이블.

2017
경기도미술관
교육자료집

2/2권

《가족 보고서》_라운드테이블

—

경기도미술관 기획전
《가족 보고서》 연계 학술행사

라운드테이블
.....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행사 개요
.....

프로그램명 내일의 공동체 :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일시 2017. 7. 1(토) 오후 1시-5시

장소 경기도미술관 2층 회의실

내용 철학자, 건축가, 환경학자, 인권 전문가, 동물권 전문가, 미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에 대한 각 분야의 시선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토론하는 학술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온라인 사전 신청

참여인원 35명

행사 소개
.....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이고 공동 운명체적인 사회 집단인 '가족'은 사회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그 형태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라운드 테이블 <내일의 공동체>는 《가족 보고서》전과 연계한 학술행사로, 가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공동체'를 주제로 과거와 현재의 공동체의 역사와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가올 미래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철학자, 건축가, 환경 학자, 인권 전문가, 동물권 전문가, 미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행사 일정
.....

시간	내용	참여자
13:00-13:20	참가자 등록	사회: 박우찬(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13:20-13:30	개회사	최은주(경기도미술관장)
13:30-14:20	기초발제 가족 공동체의 미래	권용혁(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14:20-14:30	휴식	
14:30-15:30	라운드테이블 1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지향	모더레이터: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패널: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동양대학교 조교수) 배영근(환경 변호사), 정주연(인권교육센터 '들') 김혜란(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배종현(미술가)
15:30-15:50	휴식(커피 브레이크)	
15:50-16:50	라운드테이블 2 지속가능한 미래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모색	모더레이터: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패널: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동양대학교 조교수) 배영근(환경 변호사), 정주연(인권교육센터 '들') 김혜란(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배종현(미술가)
16:50-17:20	질의응답	
17:20	폐회	

발제자 및 패넬 소개

권 용 혁(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대학시절 독서 모임에 발을 들인 인연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경부터 동아시아 및 한국 현실의 변화상에 관심을 두고 서양 철학의 상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 현실을 대상으로 철학화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사회철학, 정치철학, 실천윤리학 등에 관심이 많고 '사회와 철학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홉스의 개인주의 비판》(1991), 《이성과 사회》(1998), 《철학과 현실》(2004),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공저, 2004), 《한국 가족, 철학으로 바라보다》(2012)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철학자와 '사회적 현실'>(2002),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모색>(2004), <다수와 소수의 관계 탐구>(2007), <정상성으로의 귀환>(2008), <민주주의와 소수자>(2010), <개인과 공동체>(2012) 등이 있다.

정 이 삭(건축가, 에이코랩 대표, 동양대학교 조교수)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설계와 도시 디자인을 공부했다. 그는 건축 및 도시설계 실무 경력 외에 대학 또는 사설 연구기관에서 공공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국가기관 미술기획 사무소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에이코랩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배 영 근(환경 변호사)

국내 흔치 않은 환경 변호사로, 녹색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 대기 오염 관련 시민소송, 밀양 송전탑 관련 산자부 대장 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소송 등 환경공약 법률 자문 및 활동을 해왔다.

정 주 연(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995년 참여연대에서 참여사회아카데미 운영간사를 시작으로 격월간지 <참여사회> 편집

위원,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사회부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활동가, (사)한국여성연구소 사무국장 및 계간지 <여성과 사회>, 학술지 <페미니즘연구> 편집팀 등을 거쳐 현재는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상임활동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세계화에 불만있는 여성들》(2001), 《인권, 교문을 넘다》(2011), 《금요일엔 돌아오렴》(2015), 《다시 봄이 올 거예요》(2016), 《그래, 엄마야》(2016) 등이 있다. 인권교육센터 '들'에서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당사자 및 교사, 주민 등 다양한 대상에게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혜 란(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상임이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002년 지구상에서 가장 약자인 동물들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아름 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후, 2006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시민단체로 등록하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물보호 활동의 발판을 만들었다. 김혜란 상임이사는 현재 카라에서 운영 총괄을 맡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며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과 동물복지 정책 활동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배 종 현(미술가)

《가족 보고서》전 참여작가로, 자신이 처한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작품의 주제로 삼아 그 변화에 따르는 스스로의 반응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은 두 아이를 둔 아빠이자 남편이고 가장인 작가의 아주 사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커다란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이 크고 작은 갈등들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작가는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회화과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2013년 경북대학교에서 미술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15년에는 작가의 지난 17년간의 작업의 조각들을 모아 주제별로 분류한 《배종현 작업집서》를 발간하였다.

기초발제

가족 공동체의 미래

권 용 혁 울산대 철학과 교수

1.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 1.1. 개인과 가족, 결사체와 공동체
- 1.2. 가(家)와 가족. 역사적 흔적 해석하기
- 1.3. 철학과 현실의 소통 가능성 모색

2. 한국 사회를 가족으로 말해보기

- 2.1. 근대화와 가족주의
- 2.2. 가족과 가족주의의 시대적 변화 양상
- 2.3. 가족 결집과 가족주의 강화

3. 한국의 가족과 가족주의의 변화 내용 정리하기

- 3.1. 한국의 가족과 가족주의의 변화상
- 3.2. 통계로 본 가족과 가족주의의 흐름

4. 가족을 대상으로 철학하기

- 4.1. 복합적 사태와 복합 성찰성
- 4.2. 일차적 가족주의와 이차적 가족주의
- 4.3. 친밀성과 연대성의 새로운 연계 구상
- 4.4. 가족, 국가 그리고 열린 공동체
- 4.5. 열린 공동체주의를 위한 제안

1.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 가족을 운명공동체로, 개인을 그 안에서 태어나 살다 죽는 존재로 간주

○ 한국 사회

- 20세기 내내 한국의 학계는 서구의 시스템과 사상을 수입하고 계몽하고 확산하거나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해독
- 그런데 이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정확하게 대변해주지 못하기 때문
- 20세기 우리의 모습을 정리할 필요

1.2. 가와 가족 : 역사적 흔적 해석하기

家

- 지붕 아래에서 기르는 돼지의 모양 : 농업 사회에서 형성된 기초적 생활 공동체
- : 정착 생활 공동체의 기초 단위
- : 고대 이래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

族

- 정기(旌旗) 아래 화살 한 대가 있는 모양 : 동일한 가치 아래에 모인 전투 단위
- : 동일한 혈족의 사람들은 동일 구역에 거주하면서 평일에는 협력하여 생산활동, 전시에는 공동으로 적을 막음

→ 이런 개념사를 염두에 둔 한국 가족 이야기

- 유가적 '家' : 초시간적인 제도체(制度體)
- 한국과 중국 : 혈연자만 vs. 일본 : 비혈연자도

1.1. 개인과 가족, 결사체와 공동체

○ 서구 근대

- '개인의 탄생' : 인격적 개인과 경제적 개인
- 초월적 존재와의 교류로 인격성을 확보.
- 세속화, 자본주의화로 타산적 개인의 등장
- 인격의 존엄과 자기이익, 둘 다 강조
-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도, 로크 이후의 자유주의 사상도, 자본주의도, 서구 중심의 보편성 주장들도 그 뿌리는 근대적 개인

- 동아시아 유교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개인과 공동체의 선순환 관계 중시.
- 서구처럼 초월적 존재를 요구하지도 그 존재와 동화되지도 않는다.
- 타산적 개인, 자기 이익을 강조하는 사인 보다 공인을 강조
- 요순시대의 성인이나 공자처럼 천하위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

○ 서구 사회 vs. 동아시아 사회

- 부부 관계가 중시된 서구 사회
- 부모와 자식 각자 독자성과 비연속성 강조
- 가족도 이차집단에서 부부 둘 사이의 계약으로 맺어진 소사이어티의 하나로 간주
- 친자 관계(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중시
- 공동체의 존속, 세대 간 연속성 강조
- 부자 관계 모델이 대인 관계 모델로 확산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기초발제:
가족 공동체의 미래

- 일본 : 가장권 상속과 재산권 상속이 긴밀히 결합
장남 1인에게 단독으로 계승
- 중국 : 가장권의 상속과 재산의 상속,
제사권의 상속이 확연히 분리
- 한국 : 가장권의 상속과 제사권의 상속은 결합되어
장남에게만 계승
재산 상속은 별도로 분리되어 자식에게 계승

- 혈연이란? 유가는 부계 혈연을 강조. 모계, 처계 혈연은?
- 생물학적 혈통: 20~30만년 전 탄생한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들.
- 문화적 혈통: 역사, 사회마다 다르게 해석됨.
고려시대와 조선 후기.

- 한국 : 제사권 상속이 가장 기본적. 차등상속
- 일본 : 호주의 지위 계승이 우선적. 1인 단독 상속
- 중국 : 재산 상속이 가장 기본적. 균분 상속
- 역사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 존재

→ 철학 이야기

∴ 가족이 우리들 삶과 사유를 가장 원초적으로 지배.
인간의 뇌는 미완성의 상태, 약 10년에 거쳐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 가족은 인간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서식처

○ 서구 철학자

- 플라톤의 가족 해체론
-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이코스과 가부장권
- 흄스의 힘의 논리에 따른 가족 해석
- 로크의 계약론적 가족관

- 헤겔의 사랑의 변증법
- 현대 사상가들의 민주적 가족이론

→ 동아시아인의 관점에서 혹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1.3. 철학과 현실의 소통 가능성 모색

○ 정상적인 철학함이나 사유 행위

- 현실과의 부단한 소통과 해석 그리고 재해석을 통해서 진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 내용을 성찰적으로 재구성한 것 → 철학
- 문제점은 서구의 철학적 문제들이 우리 현실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는 논의의 서식처가 다르기 때문.
- 초월자와 개인/ 공동체 속의 개인
부부중심/ 부계중심

○ 한국의 철학

- 서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조탁된 내용을 수용
- 20세기 한국인과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거나 해석해내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못하다.
: 개념들의 발생 배경도, 이들을 새롭게 해석해온 해석의 역사도 이곳 이야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
: 비서구적, 동아시아적, 혹은 한국적 맥락이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
- 정상적인 철학적 시각과 기준이 기본 축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은 계속되었고 성찰의 뿌리는 정리되지 않은 채 부유
→ 인문학, 그 중 강단 철학의 위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철학해야 하는 것일까?
철학은 현실과 어떤 방식으로 조우해야 하는 것일까?

: 17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18세기 중반에 완성
• 신라는 왕위를 5종 친족원만 계승, 삼국시대 이래 장기간의 처가살이(婿留婦家) 전통
• 고려 시대, 조선 중기까지 재산 상속은 남녀 차별 없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배
• 고려는 장기간의 처가살이, 친가·외가·처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친족 형태, 재산 균분 상속과 유희 제사나 분할 제사
• 장남 우대·남녀 차별은 17세기 중엽 등장
18세기 중엽, 장남 우대·남녀 차별 상속 제도 지배
→ 1000년 이상 처가살이와 균분 상속이 유지
부계 혈족 중심, 장자 중심 차별 상속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만 작동된 전통

2. 한국 사회를 가족으로 말해보기

2.1. 근대화와 가족주의

- 20세기 후반기 한국 사회 내내 근대화와 가족주의 강화가 함께 작동 : 혈연(가족, 문중), 지연(향우회, 지역주의), 학연(초중고·대학 동창회)의 삼각편대와 변종들이 한국 근대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배
- 한국의 가족주의는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작동되어온 가족 중심의 삶의 형태를 반영 : 집약적인 이식(移植)형 수도작(水稻作)의 발달로 가족을 노동의 기초 단위로 하는 소농(小農) 중심 사회와 유교문화권
- 조선 후기 부계 혈연 중심의 세력 결집 현상 : 향촌 사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부계 측 혈연과 가족을 중심으로 결집 : 주자학 수용하며 조선에서 유교적 가족 이념의 특정한 내용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강화

- 삼국 통일 전까지 소규모 가족인 연(烟), 세대 복합체, 취락, 읍락, 소국, 국으로 구성. 그 기본은 세대 복합체.
- 신라, 고려는 세대 복합체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 사회.
- 조선왕조는 호(戶)를 기초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정비
- 양반 - 상민 - 노비의 신분제 사회로 변환
- 부계 혈족 중심의 부계 성씨에 대한 절대적 관념도 조선 후기 등장
- 17세기 숙종기(1661-1720) 이후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지배 구조가 전국적으로 시행
- 부계 혈연 중심, 장자 중심, 문중 중심의 종법 질서를 강화

“전 백성의 양반화”, “계층 상승을 통한 계층무력화”
: 기존 계급 질서의 수용과 동화라는 계층 상승 방법 선택

17세기 본격화된 소농 사회의 가족 중심 생산과 소비 체제 정착. 소규모 가족의 노동집약적 소농 경제체제. 근면혁명(산업혁명)

상민이 양반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친족 집단 결성
양반은 17~19세기 동성의 친족집단 결속으로 사회적 지위

2.2. 가족과 가족주의의 시대적 변화 양상

- 부계 혈연 강화 현상

유지
부계혈족 중심의 가문과 문중, 제사 등이 18세기 이래 거의 모든 향촌 사회에서 일상화
1930년대 28000여 개의 촌락 중 14000개 이상이 동성촌락

2.3. 가족 결집과 가족주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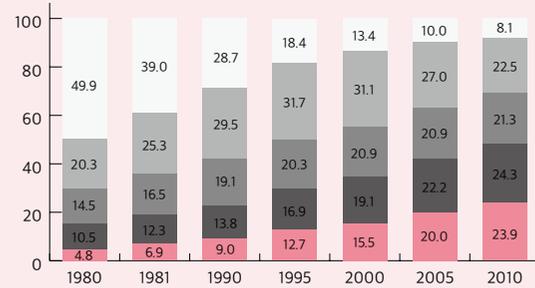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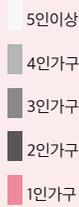
- 위기 상황에서는 유사하게 반복 :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 시기, 도시화 :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국가가 최소한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족 단위로 삶을 꾸려옴
- 가족, 가족주의, 유사가족주의 동원 친족 중심의 결집이 천하위공과 단절. 국가나 공동체가 작동 불능 상태에서는 가족 및 친족이 개인의 생존을 위한 기초 거점으로 작동됨. 그 폐쇄성이 강화됨.
-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 탈농촌화, 도시화, 산업화, 가족, 가족주의는 동전의 양면 + 국가의 전략
-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초 의무 방기, 가족이 고스란히 넘겨받음
-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 근대화와 가족주의의 교호 현상
- 서구적인 것들과 전통적인 것들이 공존하고 섞이는 과정에서 삶의 궤적을 정리할 필요, 철학과 현실이 소통하는 하나의 전형

3. 한국의 가족과 가족주의의 변화 내용 정리하기

3.1. 한국의 가족과 가족주의의 변화상

- 20세기 후반 가족과 가족주의가 강화된 한국 사회서 살아온 세대,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길러짐
- 1950~1960년대 유년기를 보낸 세대, 부계 혈연 중심의 유가적 가족주의의 가치관
 - 해방 이후 개정된 친족법 : 호주제 및 가부장적 직계 제도 존속, 개인보다 집 우선적인 해석
- 1970년대 이후 20년간 산업화, 도시화 진전
 - 직계 가족 형태 감소, 도시형 핵가족 증가, 부부 중심
 - 직계 가족과도 관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화, 복합적 기능의 수행자
- 도시형 핵가족
 - : 전통적 직계 가족 관계와 근대적 핵가족 관계가 변용·채택한 가족주의, 독특한 복합적인 특징
- 한국 근대 가족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적 사태의 변화상을 고려해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개념화와 이론 요구
- 집단이익 중심적, 폐쇄적 가족 및 가족주의를 천하위공/ 대동사회와 연계된 원래의 논점의 복원 및 21세기형 재해석이 필요.
- 1990년대 민주화 이후
 - 1990년 개정 가족법(남녀 평등과 여성의 법적 지위 강화), 2005년 호주 제도폐지
 - 다문화 가족의 증가
 - : 폐쇄적 국민국가의 한계 벗어나 민주주의 경계 확장
 - :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문제 등이 가족

- 내부 문제로 내재화
- 지식정보 사회의 확산
- : 남녀 노동의 외형상 구분과 차별이 약해지고
- 삶터와 일터, 일과 여가의 경계도 모호
- 다문화적인 것과 수평,
- 유연한 네트워크형 구조 재구성



3.2. 통계로 본 가족과 가족주의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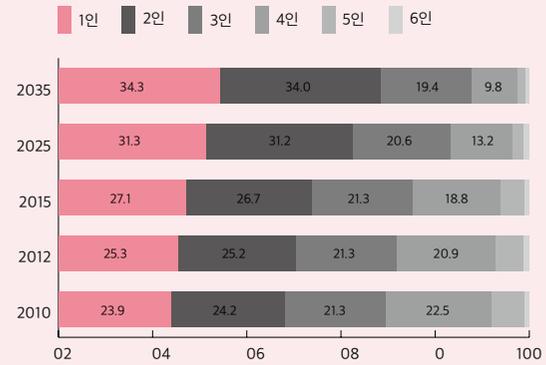
- 중층화, 중첩화, 혼성화
- : 현실 변화를 기본 통계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

- (1) 가구 형태 변화와 가족주의 내용 변화
- 형태상, 핵가족 분화되고 1인 가구 확대
- 가족주의 내용도 변화
- : 1세대 가족과 1인 가구의 확대 경향
- : 가구원의 수도 감소
- : 1인 가구가 2015년(27.1%) 이후 가장 비율이 높은 가구가 됨



- (2) 한국의 가족 및 가족주의의 특징
- 1960년대까지 가부장적 직계 가족 중심
- 1980년대까지 직계 가족, 핵가족 섞인 가부장적 가족주의
- 1990년대 이후 도시형 핵가족 중심의 가족주의
- 현재 핵가족과 1인 가구의 혼합 형태

- “2세대, 1세대, 3세대 가족” 순서로 변화
- : 핵가족 내 부모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자리 잡음
- : 핵가족 내부의 관계 및 핵가족과 개인의 관계로 그 해석의 주요 기준점을 이동



- 새로운 가족주의
- : 폐쇄적, 배타적 가족중심주의의 실효성 상실
- : 복지 제도 도입,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던 교육, 의료, 노인 돌봄 등의 기능이 일부 사회로 이전
- : 가족 내부, 물질적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에 덧붙여 구성원 개개의 자아실현과 행복 위한 프로그램 요구
- : 그럼에도 한국형 가족주의 유지,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 안 삶이 구성원들에게 선호되고 있기 때문

- 도시형 핵가족 가족주의 1인 가구의 증가
- 개인주의형 가족 이념

→ 핵가족 중심 가족주의의 틀

- 가족주의 내용도 변화
- : 도시형 핵가족의 가족주의가 대체
- : 부부 중심의 삶
- : 수평적 공동체주의적 가치 확대
- : 핵가족 중심 일상생활 운용

→ 새로운 가족주의의 등장

→ 기존의 가족주의 형태 및 내용을 재편성할 필요
∴ 핵가족이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

→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관계도 재설정할 필요
∴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가족 공동체를 더 선호하기 때문
∴ 자본과 노동, 정보와 문화의 탈국가화로 다문화가족, 이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음

4. 가족을 대상으로 철학하기

4.1. 복합적 사태와 복합 성찰성

- 가족 및 가족주의의 내용도 변화
- : 조선 후기 정착된 독특한 유교적 가족주의, 여러 전통 중 하나에 불과
- : 식민지 시기 일본 호적법의 영향, 해방 이후 한국 가족법 개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

: 근대 이후 유교적, 도구주의적, 서정주의적 가족 이념, 개인주의 가족이념 등
 ↳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 배타적 모습, 내부적으로는 뒤섞여 있는 독특한 복합적 형태
 + 1인 가구 확대, 다문화 가족 등 새로운 유형의 부상으로 한층 복합적

• 빠른 근대화, 산업화, 지식 정보화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가족 형태의 중층화, 중첩화, 혼성화가 진행됨.
 • 가족 구성원들은 이 복합적 사태로 야기된 난제들을 다층적, 복합적으로 해결.
 • 사오십대 가장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과, 민주적 가치관, 연고적 가치관 등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 복합적 사태에 대한 복합적 성찰 능력이 요구
 : 복합적 사태 속에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 한국인들이 동원했던 사유의 특징 = “복합 성찰성”
 : 한국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 복합적 사태로 인해 야기된 난제들에 직면, 다층적·복합적 해결 필요

•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
 : 일상생활에서 복수의 가치관 상대화, 스스로의 행위를 복합적으로 처리
 : 복합적 자아정체성 내에는 상호 모순되기까지 한 이질성 포함, 이 이질성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지 않고 상대화해 다층적으로 자신 내부에서 공존

• 가족 구성원들, 명료한 자아정체성 경리를 상대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성찰하고 복합적으로 해결책 모색

• 역동적 사회 변화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온 한국 근대 가족 구성원의 특징적 모습

: 한국 사회의 역동성, 독특한 가치관 이동 패턴도 설명 가능

↳ 역동적인 사회 변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현실 적응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복수적으로 설정
 : 특정한 주도적 가치들의 빠른 변화를 체험, 구성원들은 특정한 가치나 이념들을 상대화하는 능력을 공유하거나 함께 길러온 것

↳ 복합적 사태에 대한 복합적 성찰력의 작동 현상

• 복합 성찰성의 선택
 : 이론을 삶을 설명하는 다양한 도구로 이용하는 능력을 배양한 것으로 해석

↳ 복합적 현실 사태들의 인정과 이에 대한 해명 위해 다양하게 동원되는 상황을 개념화

4.2. 일차적 가족주의와 이차적 가족주의

• 가족주의, 유사가족주의
 : 역사적 뿌리는 조선 후기
 : 개별 가족들이 생존과 영속을 위해 채택했던 가족 전략의 산물
 : 신유학의 기본 정신인 도덕심 고양과 예치,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 강화 등과는 배치되는 경향
 ↳ 한국의 가족주의가 갖는 독특성
 개인 및 가족 공동체의 물질적 생존과 생활 그리고 번영을 위해 동원된 전략

• 가족주의, 유사가족주의
 : 1990년대 이후, 배타적 가족주의의 내용 변화
 : 가족 구성원의 자아실현, 동등한 권리 및 자유 존중, 상호 이해와 배려, 행복 등 탈물질적인 가치들이 점차 확대

↳ “일차적, 기초적 물질중심 가족주의”에서 “이차적 비물질적 수평적 네트워크형 가치 중심의 가족주의”로 이동 중

4.3. 친밀성과 연대성의 새로운 연계 구상

• 구성원 사이의 소통
 : 수평적 탈 권위적 쌍방향적 형태로 변화
 :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의 소통 구조 변화
 : 공동체 내부 소통 구조의 수평화, 쌍방향화로 외부인과 관계도 상호 수평적이고 개방적 관계가 일상화
 ↳ 한국 가족의 공동체성이 변화함에도 앞으로 한 세대 이상은 유지될 것,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할 것이지만 영향력은 지속
 ↳ 20년 이상 핵가족 견재, 구성원들은 공동체적 덕목들을 중시할 것

• 장기적 변화 예측
 : 친밀한 수평적 연대가 주류를 이룰 가능성
 : 부모 세대는 가족 내적 친밀성 더 강조
 : 젊은 세대는 친밀성에 기반을 둔 수평적 연대 강조
 : 시간 흐름수록 친밀성과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연대가 진행될 확률 높음
 ↳ 한국에서 개인 및 개인주의가 주도적으로 헤게모니를 실행할 날은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것

• 현대적 전략
 :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고 사회적 연대를 위해 협력하는 논리와 시행 전략 구사 필요
 : 가족 내에 습성화된 공동체성을 사회적 공동감으로 확대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한국 가족이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사회적 자산,

미래 지향적 규범에 맞게 재구성, 재해석 작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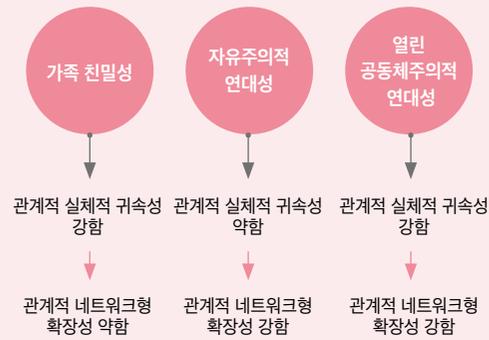
• 현대적 전략
 : 부모·자식 세대 간 이루어지는 친밀한 연대는 공유 경험에 바탕
 : 타인과의 연대는 차가운 연대,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바탕에서 작동되는 방식이 기존의 민주주의적 연대 방식
 : 이 둘을 호혜적으로 엮는 따뜻한 연대, 따뜻한 민주주의의 형태?
 ↳ 친밀성과 연대성의 호혜적 조합은 최소한 규범적으로는 구상 가능

• 규범적 구상
 : 현재 한국의 가족은 개인화와 가족 지향성이 함께 진행, 이 둘이 호혜적으로 혼합되면 구성원들의 감성적 친밀성도 증시되고 자유와 권리도 기본적으로 보장

• 따뜻한 민주주의가 작동된 최근의 사례
 : 외환 위기 시 금 모으기 운동, 광주병과 촛불시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과 시민들의 협력, 세월호의 전 국민적 관심, 비폭력 촛불 혁명
 : 역사적으로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집했던 사례들과 연계
 : 도시형 핵가족의 가족주의 안에서 길러진 정서적 친밀성과 이타적인 사랑과 배려나 희생의 일상화 등의 습성이 사회적 공감의 형태로 확장된 것
 : 친밀성과 공감에 기초한 따뜻한 연대의 전형
 ↳ ‘공감의 폭발적 공유 현상’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근거에 가족주의적 삶에서 습성화 된 소통의 방식이 자리
 ↳ ‘친친’(親親)과 ‘인’(仁)이 국민국가적 단위로 확장·적용·재구성된 사례

→ “열린 공동체주의적 연대성”이 작동된 사례
 : 공감의 공유와 공동체적 감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열린 공동체주의적 연대가 구현된 모습
 : “이차적, 비물질적 수평적 네트워크형 가치 중심의 가족주의”

→ 연대를 강조하는 공동체, 일종의 따뜻한 네트워크형 공동체의 모습을 띠 것
 : 개인과 가족이 서로 공동체적인 균형 관계를 유지, 정서적 친밀성이 작동되면서도 수평적 네트워크형 연대가 가능해지는 독특한 형태



○ 열린 공동체주의적 연대성

- 가족 친밀성과 자유주의적 연대성이 선순환적으로 연계된 열린 공동체주의적 연대성이 작동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 중요
- 친밀한 연대를 가족을 넘어서서 확장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주의를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경하는 기준점이 될 것
- 개방적인 젊은 세대들, 네트워크형 공동체를 체험한

사람들도 이런 따뜻한 열린 공동체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

4.4. 가족, 국가 그리고 열린 공동체

○ 국가주의 이후의 열린 공동체론

-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
 : 두 문화, 두 국가 정체성의 ‘중첩성’을 기반
 : 이쪽과 저쪽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정체성 추구
 : 보다 확장된 시선으로 국민국가의 한계를 지적, 이를 넘어서는 보다 이상적인 공동체적 대안 제시

→ 중첩국가적이며 통국가적인 열린 공동체의 모습은 공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사유의 경계도 함께 확장

○ 중첩공간, 중첩국가, 중첩시민

- 통국가적 시야로 두 나라 장단점 파악하고 대안 제시
- 삶 속에서 형성된 통국가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획
- 세계시민적 정체성과 보편성도 다양한 중첩성과 중첩 정체성을 고려할 때 실제화될 것
- 국가 정체성과 시민 개념을 재해석할 필요
- 진정으로 개방적인 국가 공동체의 모습이 구체화될 것
- 세계시민 공동체를 지향하는 열린 공동체의 모습이 단계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4.5. 열린 공동체주의를 위한 제안

○ ‘관계 중심성’ (혹은 관계 존재론)

- 친밀성과 연대성의 열린 공동체주의적 조합을 타당하게

하는 철학적 토대

- 서구 근대적 개인과 그 개체 중심성에 기초한 자유주의의 한계는 개인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기초 단위로 설정
- 서구 근대 개체 중심적 이성주의 철학에 대한 그 이후의 반성, 타자와의 유의미한 관계 설정을 위한 것

○ ‘열린 공동체주의’

- 가족이라는 특정 공동체의 실제성과 논리적으로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형 소통 구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념적 보편성 함께 고려하는 보편적 공동체주의
- 자유주의와 실제적 공동체주의, 의사소통 공동체 이론을 재구조화한 것
- 철학적 바탕이 관계 중심성(관계 존재론)
 ∴ 개체 중심성의 나홀로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
- 개체 존재론
 :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타자를 주변화
 : 타자와의 수평적 연대에 실패
 : 타자와의 상호 소통 실패로 자신의 정체성도 의미 있게 확보할 수 없는 한계

- 관계 중심성(관계 존재론)
 : ‘관계적 자유주의’
 : 서구 근대의 주관주의를 극복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균형 있게 파악
 : 개인화의 규범적 좌표를 ‘가족지향적인 개인화’로 설정

- 전통 유교의 공동체 중심의 논리
 : 실제적 관계론이 그 핵심
 : 인·효·예 등도 구성원들의 실제적 관계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서, 동심원적으로 확장되는 특성
- 천하위공과 대동인 등의 전통적인 이념을 21세기 한국 사회를 또 하나의 ‘현실’로 재해석할 필요.
 이것은 한국의 21세기 형 민주주의가 지향해야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임.
- 실제적 공동체를 보편적인 세계 공동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실제적 내용과 사유의 보편성이 동일한 지평을 이룰 것

→ 가족 포함한 실제적 공동체에 기초한 공동체주의 재해석과 재구성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실체적 보편성’을 담지 ‘열린 공동체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

라운드테이블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¹

¹ 본 글은 2017년 7월 1일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1부와 2부의 패널토론의 녹취록을 풀어서 작성된 것입니다.

● **박 우 찬 (학예팀장, 사회자)**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겠습니다.

가족 보고서는 지금 전시장에 가면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시대의 가족의 개념, 가치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4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토론장 밖에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라운드테이블 내일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역사적 개념과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의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행사일정은 나눠 드린 일정표를 의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먼저 권용혁 교수님의 기초발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운드테이블1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지향, 라운드테이블2 지속가능한 미래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모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폐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자 및 패널분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권용혁 교수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철학과 교수님이시고, 동아시아 및 한국 현실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서양철학의 선교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 현실을 대상으로, 철학하는 이래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 '철학과 현실', '한·중·일 3국족의 의사소통 구조비교', '한국가족 철학으로 바라보다' 등 다수의 저서들이 있습니다.

정이사 건축가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에이코랩 건축 사무소 운영 하면서, 동양대학교 조교수로 계십니다. 건축설계와 도시디자인을 공부하셨고, 건축 및 도시설계 실무 경력에 의해 대학 및 국가 연구위원회에서 활발히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패널로 배영근 환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환경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녹색 법률센터 변호사로 시작하셨으며, 서울시 대기오염관련 시민소송, 밀양송전탑 관련 산

자부 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소송 등 환경공약 법률자문 및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 참여사회 아카데미,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저서로서는 '세계화에 불만 있는 여성들', '인권 교문을 넘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등 다수가 있습니다.

김혜란 동물보호시민센터 KARA 비전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시민센터 KARA 비전연구소장이십니다. 김혜란 소장님은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며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과 동물 복지 정책을 위한 활동 및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배종현 작가님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가족 보고서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이십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작품에 주제삼아 그 변화에 따르는, 스스로의 반응을 다양한 물체를 활용해 기록하는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할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님이십니다. 현재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을 맡고 계시는 국내 둘도 없는 문화예술전문가이십니다.

다음은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최 은 주 (경기도미술관장)**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좋게 공간이 굉장할 것 조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은 열려있는 테이블이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큐레이터들, 양팀장·박팀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미술계에서는 모실 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보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전시를 개막하는 과정에서 이 '가족 보고서'라는 전시가 저희에게 자꾸 숙제를 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면서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우리가 미처 전시로써, 작품으로써 다 풀어내 주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숨겨져 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개막과 진행도 흥미로웠지만, 오늘 이 행사의 준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먼 길 마다 않고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은 기본적인 주제지만 너무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발표해주시는 분들과 격의 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 용 혁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기초발제자**
기초발제?

2 기초발제내용은 앞 원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라운드테이블1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지향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오늘, 쉽지 않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앞부분에 들으셨겠지만, 권용혁 교수님께서 20여 년 동안 연구한 것들을 주제에 맞게 압축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제가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 내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 권용혁 교수님이 학계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러셨겠지만, 국가 외에도 자본과 시장의 개입, 그리고 가족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다루시느라 애들러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농촌형 핵가족이 도시형 핵가족으로 발전되고, 이 점이 '한국사회의 산업화'라고 이야기하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검토했으면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전진에서 독특한 부분인 해방 후 정부수립이 되면서 이루어진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은 사회주의에서 검토되었던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남한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화가 되는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과감하게 농지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도농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농지개혁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사회주의에서 걷는 토지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분배하겠다.'라는 주장의 설득력 때문

에 방어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수가 있었지만, 덕분에 오늘날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단위가 만들어지고 ‘농경화’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야의 패널 분들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가족’에 대해 전공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신 분들은 ‘건축’이나 ‘도시설계’를 전공하신 분, ‘환경변호사’,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 ‘진화 도중에 있는 현재 가족’이라는 것에 인간과 동반하는 가족 뿐 아니라, ‘반려동물’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주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의견을 갖는 분도 함께 하시고, ‘가족 보고서’ 전시에서 인상 깊은 작품을 남기신 ‘참여 작가’ 분 등 다양한 결의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신 건 저희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한 기획자들의 의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보고서’ 전시의 연계프로 그램으로 학술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가장 기본은 ‘가족’이지만, ‘가족’에서 비롯해 연계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가족 내의 문제 외에도 연계된 다른 중요한 것들이 구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문명과 대면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초 단위 공동체부터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 시민 공동체에 있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실체를 성찰할 때 결핍되어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포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결핍된 부분들을 보완해 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족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사회적이거나 폐쇄적인 형태로 흘러갈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를 공론화 시켜야 할 때, 우리 내외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그 장애를 걷어 내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결핍과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하려면 다양한 결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모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부에서는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역할결과지향, 그 다음 잠깐 쉬고 2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공동체형성을 위한 모색,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저희가 사전에 당부 드렸듯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각 패널 분들이 각자의 구상을 가지고 참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5분씩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이 하고 계신 일들, 활동하는 영역, 왜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관심을 갖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 앞으로의 미래에 본인의 일이 가치가 있거나 가치증식적인 일이 되기 위해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그 가치가 공동체의 어떤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주시시오. 그 다음 질의 응답을 통해 토론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1부에서 언급한 것들을 구체화 해 나아가기 위해 청중 분들과 함께 내 가족이나 직장 등,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대안 또는 바람직한 공동체로 발전 및 형성하려고 할 때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재현하고 싶은 것들, 또는 함께 교감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소개 드렸지만, 아무래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시작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환경변호사이신 배영근 선생님께 먼저 청하겠습니다.

● **배 영 근 (환경 변호사)**
이름은 인사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로서는 9년차입니다. 그 중 작년까지 만 7년을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 안에 있는 법률센터에서 상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4대강, 밀양 이런 환경 갈등에 대한 현안이 있는 지역의 문제를 많이 겪고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 쪽으로 소송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사건들을 접하면서 가장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산이 깎이고 강이 오염되는 것도 물론 가슴이 아픈 일 이기는 하지만, 그것 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주변에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개발 사업의 찬반 의견이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나뉘면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갈라져 서로 인사도 안하거나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 오게 되었습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현재 활동하고 계신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배 영 근 (환경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지향, 모색,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실 낯선 주제라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갈등현장을 보다 보니까 가족이나 마을과 같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것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 가족과 마을 공동체들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21세기는 가족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미래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모심과 살림 연구소 등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산업화에서 썼던 청색전략, 사회주의권에서 썼던 적색전략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 그림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사회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때는 가미해주셔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 주 연 (인권 교육 센터 ‘들’ 상임활동가)**
사실 저는 정확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제안을 받아 정말 급하게 어젯밤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 거의 강의록처럼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온 것 같은데 일단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인권교육센터 ‘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인권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보통 강사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언제나 교육활동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인권의 가치를 우리가 사는 곳에 잘 퍼뜨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90년대 후반부터 생긴 인권단체에서 출발해 인권활동을 계속 해왔던 곳인데, 지금은 교육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소수자들과도 만납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다양한 인권옹호자들을 만들기도 하는 등 당사자가 인권옹호자가 되기를 바라는 교육들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일은 2014년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의 참혹한 아픔 앞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기록 활동 단체인 '세월호 작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세월호 작가단'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유가족의 목소리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라는 작년엔 나왔던 생존 학생과 유가족,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관심을 갖는 곳은 인권 기록 구술 기록 네트워크 '소리'입니다. 저희가 '밀양을 살자.'와 같은 밀양과 관련한 책들을 준비했으며, 저도 작년에는 여기에 참여하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아에게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 그 엄마들은 자신은 비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장애의 삶을 살고 있으며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족주의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족은 아주 온전하게 살아있으며, 모든 위기가 가족으로만 전가된 신자유주의 사회 안에서 가족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여성의 역할은 더욱 더 지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아를 가진 가족은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기록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케어의 주체들은 대부분 엄마들이지만, 생각보다 아빠들이 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반면 엄마들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단체에서 인권교육을 하면서 주로 활동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이주민 혹은 저희 자체도 우리는 다 소수자라고 생각하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료에 난민과 소수자에 대해 정리를 해 봤습니다. 난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난민은 영어로 'refugee'입니다.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도하며 전쟁이나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밀려나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전적 정의가 맞는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모두가 떠도는 유랑자들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에는 핍박받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은 존엄이 허락되지 않은 수많은 주체들이 있고 이 주체들이야말로 저는 난민에 소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서 멀어지고, 주변화 되고, 보편의 어떤 것들로부터 밀려난, 보편성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계속 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 성소수자 등 어떠한 당사자성으로만 구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수자라는 건 사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당한 질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주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수자 문제나 공동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라고 연민의 대상으로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서의 소수성을 발견해서 만남을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인권교육이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저는 제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타자화 시키거나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날 것이며, 끊임없이 나의 소수성과 만나는 고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현실을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사회는 낡은 것은 나쁘고, 늙은 것은 낡은 것

이며 그래서 결국 늙은 것은 나쁜 것이 되는, 이런 사회 경서가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은 채로 단지 노인 세대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보다는, '과연 우리가 공동체의 사고를 하는 것이 맞는가.', '주체가 어떻게 자괴감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이제 살만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말 살만한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재밌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엔 동대문 지역에서 중학교 장애인 직업재활학교를 만들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파트값 때문이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우린 억울하다.', '우린 아파트 값 때문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우리사회는 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갖고 있을까'입니다. 이 문제는 삶의 공간이 분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본 적이 없고, 분리 되어 있는 공간 속에 살아온 사람이 내 삶으로 침입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월호 때 봐라, 우리가 지켜줄게, 지켜줄게, 뭘 지켰냐? 아무것도 안 지켜줬다. 내 자식은 나 밖에 지킬 수가 없다.' 저는 이 현상은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변형된 가족주의의 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올해 선거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 소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야, 나중에 해줄게'라는 말에 나중으로 밀려났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반반으로 나눌 수 없다. 나는 내 모든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

다.'라고 요구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산지역이라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전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여타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인 가족이 생겨나는 점, 왜 1인 가족이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1인이기 때문에 1인인 것이 아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1인인 것이 아니라, '1인 주체가 되는 그들이 왜 1인 주체로 살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는가.' 혹은 '1인을 떠나서 왜 집이 아닌 곳에 살게 되느냐?', '왜 난민성이 생기는 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지금 난민입니다. 목표에, 여기저기에, 집에 있지만...

'그럼 집에 있는 것은 집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안전공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분들에게 이곳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회와 공동체가 끌어안고 갈 것이며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 대한 비난이나 혐오들도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소수와 약자의 대부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국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갈라지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은 굉장히 그런 여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주 노동자도 있고, 이제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부유층이 들어올 것이고, 또 여기 안전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분란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사회나 국가에 대한 친목과 갈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공동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나 배려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김혜란 (KARA 비전 연구소장)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보면 'ALF'라고 동물 해방 전선 단원들이 등장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비폭력 평화 노선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활동하는 사람을 다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반면, 멋지게 그려주셔서 '미래를 보는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23년 정도 노동운동 쪽에, 여성 운동 쪽에 7년, 동물운동 쪽에서 9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변한 직장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위해 25년 정도를 강남에서 논술 강사로 일했습니다. 어떤 사회운동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야 할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장을 옮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이 가장 제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저는 추상적 관념어가 늘 항상 어렵습니다. '타자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김연경 선생님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천 개의 공감'은 제목부터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공감을 천 개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는

김을 줍니다. 공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연히 동물을 구조하게 되어 동물 관련 계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코 페미니즘'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동물과의 관계를 공부하다보니 타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재를 내가 왜 이렇게 관찰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자성의 전제조건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관찰이 전제되지 않는 타자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은 동물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씩 획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전공과 사회운동 영역도 바뀌고, 길고양이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야생동물, 또는 복극곰, 뭇 생명들과 환경, 이렇게 넓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실천적 메카니즘은 어디에 있는가.'가 제 관심의 한 영역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저의 키워드 및 알맞은 형태의 관심은 '돌봄 사회'입니다. 저는 돌봄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든 변화 가능한 사회입니다. 늘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변화의 능동적 당사자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동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가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돌봄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첫 번째로, 돌봄 노동을 굉장히 감정노동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노동은 매우 일반적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은 쌍방향입니다.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반려동물과 나의 관계를 대입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내 반려동물에 무엇을 먹일 것인가, 언제 먹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한 감정노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고도의 이성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노동입니다. 돌봄은 원래 그런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왜곡된 패러다임을 해체하는 데에 동물과 사람의 돌봄 관계가 굉장히 힘이 되며, 쉽게 설득이 되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반대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동물학대와 유기는 어느 정도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동물 생명을 돌봄 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 '펫맘'과 '캣대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느냐와 싫어하느냐 또는, 내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느냐, 키우고 있지 않느냐 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 돌봄이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뭇 생명을 구성원으로, 타자로 존중하는 나의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KARA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조만간에는 '청년은 동물을 사랑한당'이라는 당을 하나 띄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수의사 외에도 청결한 시설관리,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입양가족들을 따뜻하게 상담해주실 수 있는 분들, 합하면 한 지자체의 유기견 센터에 30명 정도는 필요할 것 입니다. 여기는

꼭 라이선스(면허)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덕목은 굳건한 체력, 아이들 똥오줌 잘 닦아줘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동물과 나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오픈 마인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전 엄청나게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물복지가 한국사회에서는 조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동물보호를 결합시켜서 '청년은 동물을 사랑한당'을 조만간 띄울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저희가 공동체 논의를 할 때 아무래도 인간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부터 시민,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시민 공동체 이렇게 나아가는데 지금 KARA에서 활동하시니까 동물권이나 생명권을 강조하시고, 가족 안에 함께 하는 반려동물도 포함되고 동물 스스로 구성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우리가 조류독감 때문에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전체가 쳐졌었는데, 그때도 든 생각이 '동물들의 가족, 그제 가족이나 더 나아가서 야생동물이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사고의 폭의 굉장히 확장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느 분 말씀하시겠냐고 묻지 않고 아무래도 여기가 미술관이요, 작품 속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계시는 참여 작가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술 쪽 작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기소개를 곁들여주면서 본인이 보시기에 자신이 관련된 공동체에 대해서 작가로서 역할이라든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 등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 중 현 (현대미술작가, 가족 보고서 참여 작가)**
안녕하세요? 저는 배중현입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적인 작품을 해 오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지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간밤에 좀 경리를 해 봤는데, 일단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우선이다 싶어 몇 가지를 메모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단 공동체의 일원이다’, 아까 정주연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는 소수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소수자라는 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 그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책을 한 권 본 게 있는데 ‘조지 디키’가 쓴 ‘미학입문’인가 이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도로서의 예술, 예술작품을 정의함에 있어서 제도로서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측면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예술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도 속에서 예술이 존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작품을 하면 어떤 작품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공동체가 만든 공간 일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미술관도 제도 속에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 속에서 예술가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 그런 메카니즘으로서 현대미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반작용으로서 새로운 ‘생명주의 미술’도 나오고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행동주의 미술과 같은, 예술 쪽의 모습조차도 사실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폐쇄성,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린 공간 속으로, 열린 관계 속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제도 속을 뛰어넘는 행동주의 예술형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공동체 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집단 개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집단과 개인의 어떤 관계 설정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건 개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외딴섬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집단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6단계 분리 이론’이라는 걸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밀그램[Stanley Milgram]’이라는 사람이 한 연구인데, 6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사실 가족 중심적 씨족 사회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온 사회다 보니까 비교적 전통도 있고 6단계가 아니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3단계 정도면 거의 다 아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시대가 아주 좁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이 그냥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사실은 전혀 낯선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인도 초기불교의 어떤 경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차고고피기(此起故彼起) 이게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차무고피무(此無故彼無) 이게 없기 때문에 저게 없고,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 이게 멸하니까 저게 멸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론, 인연론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놓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동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도 어떠한 연결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 나의 작은 행동이 이쪽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개인이 집단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움직임이 언제든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어떤 역할, 지향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뭘 지향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향점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보람과 행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면서 민족감과 행복감을 스스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참여한 것도 작은 공동체에 기여를 하려고 나름대로 참여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극적일지 모르지만, 되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모임과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역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 테러리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로운 늑대가 야생 개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생개가 뭐냐 하면 훈련받지 않은, 아마추어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그게 정말 언제 어느 때보다 예상할 수 없는 사

태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용어로 들렸습니다. 야생. 마취.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야생개가 절 댈친다고 상상을 한 번 해봤더니 너무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세계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 일삼고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더 이상 우린 놀라지 않고,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가십거리로 재미 삼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실질한 관점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 우리 곁에 닥칠지 모릅니다. 저도 상당히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든 누군가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한테 그런 힘을 가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포용해야 합니다. 이해의 벽을 좀 더 키워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대인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하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가족 보고서 전시와 관련해서, 공동체 같은 문제와 관련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가족중심주의의 어떤 폐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다음 진행을 위해 말씀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 **배 중 현 (현대미술작가, 가족 보고서 참여 작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나 봅니다. 개인이 없었다고 보지만 사실은 개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속의 개인을 고립

된 개인, 외로운 개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 오게 되면 그게 심화 되서 자기의 뒷에 빠진 외로운 늑대들, 내지는 야생 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늘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말로만 그치고 그걸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가족 속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제 아내와 제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작가 분들이 공동체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적 자아, 독립적 개인, 이런 부분을 가장 앞장서서 표현하는 분들은 예술가, 작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렇고 사회 안에도 그렇고, 감각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작가 분들, 감수성이 좋으신 분들이 예술가의 길을 가게 될 때 무형의 공동체, 어떤 압력, 공동체의 질곡과 같은 것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건 온전히 귀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교수님이 책에서 인용한 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서구에서는 공동체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을 퇴행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동체를 포기하고 신대륙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대안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창발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가 되어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공동체 기반 예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작가들이 공동체에 대해 그러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뒷부분에서 한 번 이야기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족 공동체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은 우정 공동체입니다. 우정 공동체에 포함되는 분들은 사실상 예술가분들입니다. 화가라든지 공연예술, 이런 분들과 함께 우정의 공동체를 꾸리면서 발전해 나가고 싶은 바람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해서 어느 것보다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의 모델로서 잘 정착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까 한국사회가 개인의 개성이나 자기지향을 존중하지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열린 공동체의 입장에서 고려하며 나아가간다면 비서구적 모형의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길에서 양쪽을 지향함과 동시에 보완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 예술가들과의 실험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예술인들과 실험을 진행하는 공동체가 제일 먼저 실현된 곳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막콧’이라고 하는 예술인 조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번에 그 곳이 ‘청년 건축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주택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도시설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정이삭 건축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연장선에서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 이 삭 (건축가, 에이코랩 대표)**
저는 일단 ‘에이코랩’ 설계 사무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동양대학교에서 북서울 캠퍼스를 만들면서 신설 학과로 공간디자인전공이 개설되어 올해부터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소속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 ‘왜 초대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왜 인터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하는 일들을 적어봤는데, 전 기본적으로 중심성 만큼이나 주변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성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성을 생각하고, 그 주변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소수의 이야기와도 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속성에 관심을 갖고, 어떤 집단의 기억 같은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설계, 전시도 하고, 공공연구를 합니다. 건축이나 전시, 이런 것은 일반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공연구 같은 것은 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연구를 해서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작업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평도서관, 동두천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연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군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며, 동두천 장애인복지관은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공 건축 작업을 하고, 작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나 올해 서울건축비엔날레 등에서 큐레이터를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사회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성, 어떤 부류의 사회 지속성 등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한 프로젝트로는 험난한 과정을 겪고 계신 전 대통령이 밀었던 DMZ 평화공원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계속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와 ‘한양도성을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수 있을지’를 서울시와 같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DMZ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부역자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제안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이거나 정치 공략적인 사업이 되는 게 아

니라, DMZ 안의 황폐화된 곳들을 자연화 시켜서 회복 가능한 공원이 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일을 따져보니 공동체하고는 맞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공동체에도 ‘공’자가 들어가고 제가 공공건축을 해서 이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권용혁 교수님 말씀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아쉽습니다. 몇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회에 익숙한 상태에서 그들의 노후를 쌓아온 반면에, 우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개인 사회가 좀 당혹스럽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1인 사회의 공유 및 사유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정의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1인 사회를 맞이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점을 듭니다. 사회적 약자인 1인 가구가 청년 1인 가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1인 가구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로, 이 주제로 전시, 연구, 사업 등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지만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불균형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찾아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국 작가의 작업을 봤습니다. 그들의 연속되는 핏줄들이 예전에는 적어도 두 세대, 세 세대 간 하나의 어떠한 단위공간의 지붕 안에서 공간을 공유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각각의 세대들이 각각의 지붕 안에서 살고 있습

니다. 집이라는 한문도, 패밀리라는 단어도 어원은 다 지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붕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의 단위공간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찢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붕이 개별화된 현재 사회의 상황에서 과거의 지붕을 대체해줄 수 있는 수단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라는 공간에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진다면, 즉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과 3세대가 같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같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도시가 지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작업이 늘 이렇게 고리타분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나이답지 않게 작업은 굉장히 노인 같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노숙하지만, 구식입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작업 중에 리모델링해서 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연남동 다세대 다가구 집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우리의 가까운 과거이며, 별다른 역사 같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유형입니다. 건축가가 만든 공간은 아니지만, 그러한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부수고, 요즘에는 화강석 물갈기로 만든 집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빨간색 벽돌집에서 어느 순간 바뀌어서 화강석 물갈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도의 차이만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부모 세대들이 살았던 집은 다세대 빨간 벽돌집이고, 자녀 세대는 화강석 물갈기 집에서 산다면,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공간 방면으로는 굉장히 적어집니다. 압축적으로 말씀 드린 거라 100%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종류의 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형상적, 재료적 등 모든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2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플로어와 함께 하는 대화 시간이 있으니, 궁금하신 것은 함께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은 3시 50분까지 휴식시간이며, 뒷편에 음식들도 준비되어있고, 3시 50분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2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색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라운드 테이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2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 형성을 위한 모색'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부분 라운드테이블 1부에서 자신이 관심 있게 활동하고 계신 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결함, 결핍을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이며 미래공동체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우토피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금 이 곳에 꿈꾸는 공동체를 형성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작가, 인접 분야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과학자들도 관련된 실험들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형으로서 우리가 미래에 겪어야 하는 것들을 선취해서 실험·검증하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면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바람 덕분에 진행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문명의 대전환, 변동기에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공동체가 사람 중심으로만 다뤄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데 있어서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에도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를 보면,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언어나 고래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언어를 인간만의 특성으로 여겼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들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의 가족, 우리의 사회적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주의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확장된 다른 이념의 공동체를 상장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내 가족에 대한 관심이 타 가족, 타 존재들에게까지 확장될 때만 그게 가능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의 책무로써 해야 할 역할들이 점점 더 커지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각자 지금 내다보시는 바람직한 대안의 공동체를 어떻게 그리고 계시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쓰시고, 어떤 참여가 있다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청중
아까 가족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직장 다니니까 직장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또 돈벌이 수단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까지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건 아니니까 취미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가 농경사회에서 같은 공간에서 공유됐지만, 지금 제 해석은 다릅니다.

가족공동체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명절 같은 때에만 만나서 공간을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직장 공동체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만 별로 정서적으로는 교류가 없는 공동체, 취미는 자신이 좋아해서 생겨나는 어떠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체가 그 세 가지는 기본이며 더 늘어날 수 있고, 취미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늘어날 것입니다. 미래공동체는 그래서 다양하고 물리적인, 자신이 좋아하는 공동체가 다차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쉽게 시공간이 없어지는 이 최첨단 미래공동체에서는 우선 커뮤니티가 커졌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커뮤니티가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라고 해봐야 천 명, 이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쉽게 해결이 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분산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을 원죄라고 정의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생태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은 식물과 동물의 희생 속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미안함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새로운 원죄라고 보며, 옛날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기보다는 주변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것만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발상이 옛날의 중앙집권적인, 또는 독재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줄여야 할 뿐, 반대로 늘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제가 국가와 사회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사회의 경우 공동체는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양육이나 교육 또는 노인부양 등의 소위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국가가 가정에 전가시키고 그에 따른 희생이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때문에 공동체와 가족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예전에 국가가 사회에 선 성장 후 분배 그리고 후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폐쇄적 공동체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1인 가족, 특히 독거노인들, 그리고 기타 소외된 사람들은 거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혼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 미래사회의 결혼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사회 구성원이 변별되는데, 긍정적 입장에서 자기실현을 위해서 스스로 독립된 가정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갖고 싶어도 처지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열패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권 교수님은 한국사회는 중층적 또는 복합적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견해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발생한 여러 견해들을 탄력적으로 서로 조정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기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고,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말씀해주실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혜란 (KARA 비전 연구소장)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 독재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생명 돌봄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람은 정의롭고 따뜻하고 타인에게 의도적 피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정언명령 같은 내용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200m 밖 대기권까지를 생명권으로 봐야 한다.'라는 린 마굴리스의 이야기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이나 무생물뿐만 아니라 사이보그까지도 생명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안경 없이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논한다면, 이 안경은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단순히 생각한다면 안경은 생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50년 이상의 오랜 논쟁을 통해서 거의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자아', '그물망'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물망 속에 존재하는 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그물망의 특징은 유동성입니다. 그물은 철망이 아니라 계속 유동적인 것 입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나의 역할이 늘 변화되며, 그 변화가 하나의 역동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명들의 관계를 저는 조금 더 들어 가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저는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추상어가 가장 힘들습니다. 사랑도 힘들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힘들고, 오늘날 모든 사람이 '나는 행복한 것이 좋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힘이 듭니다. 이 생명에 대한 고민을

몇 년 동안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봄 관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곧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공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결 되어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위해서도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오늘 나의 물리적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이 공기가 필요하고, 이 공기는 지금처럼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돌봄 관계가 존재해야만 생명 돌봄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돌봄 관계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립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우리사회는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사회, 무슨 사회... 사회학계에서 한때는 제목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경쟁사회에 아무 준비 없이, 끝도 없이 내몰리는 미래 세대들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내가 지금 하는 오늘의 한마디는 내가 죽은 뒤 7세대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로 발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쟁사회의 일종의 대당개념으로 저는 돌봄 사회와 친밀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친밀, 돌봄, 이런 것이 너무나 여성의 가혹한 희생노동으로만 이미지화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돌봄 등의 부분들이 너무나 감성 노동화, 이분법화 되어있다는 것 입니다. 자연과 문명, 여성과 노동, 이성과 감성 그런 것들이 이분화 되어있는 것들을 토대로 돌봄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돌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봄 관계에 들어 가보니 '이 부분들을 동물의 실존 관계를 고려하여 풍부하게 이야기 하면 이 추상화된 개념들이 너무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명 돌봄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섞이게 할 수 있을지가 저의 관심입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김혜란 선생님께서는 더불어 잘 살자는 취지로 동물과 식물까지 함께 어우러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능한 원천들을 지금부터 함께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정 주 연 (인권 교육 센터 '돌' 상임활동가)
아까 제가 발제했을 때 선생님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나 사회의 책무가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멘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책무라는 부분이 '과거처럼 복지체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자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자원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충충한 망을 짜는 건 중요하지만, 과거처럼 시스템화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처럼 돌봄 사회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지역사회나 마을과 같은 공간을 통해 어떻게 공공성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아파트가 아닌, 처마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가 오면 처마 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서로 처마를 내어주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아파트 공간은 우리에게 어느 것도 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포함해서 조금만 내 역할을 침범하는 것조차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공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붙여놓고 참으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나 그 공공성의 의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공성이 구성되는 방식, 관계적인 공동성, 작은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을 사회가 좀 더 지원하는 방식과 같은, 그냥 예전처럼 시설을 만들고 복지를 주는 방식과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로서의 의미보다는, 상호공존의 감각을 일깨우는 힘을 기르고 공공성의 사회를 꿈꾸지 않으면 내일의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며, 가족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좀 더 넓은 ‘가족’이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구조로서의 모습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의 가족은 기존의 어떤 정상성에 기반 하는 가족이 아니라 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 돌봄을 우리가 항상 여성적인 일로 바라보고, 감정노동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돌봄은 굉장히 이성적인 일입니다. 농사일도 그렇습니다. ‘하다 안 되면 농사나 짓지’라고들 말하지만, 농사가 얼마나 과학적인 일인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모든 노동들이 경험 없이 책으로만 배워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노동에 대한 재해석으로부터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제작년쯤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청년 건축가들이 백인이 만드는 우정의 공동체를 아파트 건물로 재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카페, 도

서관, 작은 정원, 식당 등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 놓아 아파트가 아까의 필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처마를 내주는 공간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외의 공공적인 영역에 대해 긴밀하고 효율성 있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일본에는 ‘애즈원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고, 다양한 연령의 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을 구성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생필품인데, 그곳에서는 생필품을 조합원이 필요에 따라서 갖고 가서 쓰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신 다른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통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와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돌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독거노인부분들도 돌봄 네트워크에 소속되어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일본이 확실히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 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 **정 이 삭 (건축가, 에이코랩 대표)**
제작년쯤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서울시립미술관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들끼리는 공유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 단지의 안과 밖의 사람들의 정서가 공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파트 단지가 단지 내의 사람들의 공동의 힘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아파트 단지를 만든 것은 나라가 아니라, 그 곳에 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공간은 나라의 힘이 아닌, 나라가 주도하되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제공할 수 없는 도시기반 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의 제

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의 단지 내의 공원 등의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나라가 해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었는데 왜 내가 다른 일반의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공동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국가라는 개념으로 넓어져야만 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집단 간의 공유 의식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족의 유형을 보면 조선시대 사회와 그 전 시대사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핵가족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핵가족도 있었지만 3대가족도 있었습니다. 3대 가족의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장손만 부모와 살기 때문에 장손의 집만 3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셋째가 사는 집은 3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됩니다. 핵가족의 개념은 그때부터 있었지만, 여기서 문제는 장손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요즘 사회에 오면서, 모든 사회가 다 핵가족이 됐다는 것이 가족 변화 차원에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아주 당연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핵가족이 된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크기가 작아지고, 분화되는 것을 떠나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소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고 떠나면 결국은 남는 건 부부 둘이며,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으면 한 명이 남고, 그럴 때 어느 누구도 그 한 명을 보살필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당연히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가족 내에서 누군가를 케어 했던 시스템이 망가지고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밖에 없습니다. 가족 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인 가족, 1인 노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요양원밖에 없으며, 그 요양원

이라는 공간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겨나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변화 단계에 국가, 사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체제나 시스템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비되지 않은 상태로 1인 체제의 사회를 맞이한 문제입니다. 서구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국가의 관여가 당연히 국가의 포폴리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개개인이나 작은 연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연대와 돌봄의 네트워크로 가능한가.’입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 **정 주 연 (인권 교육 센터 ‘돌’ 상임활동가)**
일단 하나 오해하시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의 개입은 지금 말한 것처럼 요양원, 혹은 장애인 시설 등 이렇게 누군가를 또 다른 집단에 묻는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공간, 작은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연대를 어떻게 비축할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돌봄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소수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노인이 됩니다. 우리 중에 노인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무릎 등을 수술하시면 장애인 등급을 4급, 3급 받으십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을 사람 없고, 우리 중에 앞으로의 시대에 시설에 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구조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를 꾸릴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지역 안에서의 연대방식들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들에 자원을 비축하고, 공공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언급한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자원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혜란 (KARA 비전 연구소장)**

저는 공동체 주의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몰려다니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관계 형성과 같은 표현이 저의 표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중계동 백사마을이라는 곳에서 7월 27일에 마을 주민들과 KARA가 조직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합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5월 말부터 그 마을의 조사를 시작하여 어떤 동물들이, 어떠한 처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그 조사 결과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연령층이 높아 동물과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고연령이 많으십니다. 외로움을 나누는 반려동물이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산책도 시키지 못 할 뿐더러, 제때 목욕시키는 건 더 힘듭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사원을 그 마을 분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원 열두 분이 마을을 돌아보며, '내가 전업주부이고, 4시 이전엔 시간이 있으니, 이때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저 분 집에 가서 내가 반려동물 산책을 대신 시켜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산책을 대신 시켜주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욕시켜주는 등, 독거노인들과 말벗해주고 목욕 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자의에만 맡겨놓을 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입하여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케어 방법, 수의학적 또는 동물행동학적 팁 등을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산책할 때 적절한 장소에 대한 경사가 심한 곳 등의 정보를 체크해드릴 수 있고, 분리 불안이 심한 경우는 동물치료사 등 전문가를 매칭 시키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백사마을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7월 말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을 한 후, 그 결과를 통해 내년에 또 어떤 시도를 할 것인지를 판단해볼 것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 복지 마을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델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의 시도들이 벤치마킹되고, 퍼져나가서 그 속에서의 친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생명 돌봄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KARA의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 모든 활동을 찍고 계시는 다큐멘터리 감독님께서서는 필름을 영화 상영하기 이전에 마을의 꼭대기에서 모든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열고 싶다고 하십니다. 왜 그 발상을 하셨는지를 여쭙봤을 때, '나는 동물도 키워본 적이 없고, 동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꼭대기에서 음악회를 하려는 이유는 평생 1M 내의 목줄에 묶여있는 아이가 있는데, 음악회에는 올 수 없지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지금 묶여있지만 이 음악을 들길 바란다.'라고 하시며 꼭대기에서 음악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점차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좋습니다. 지금 동식물, 인간, 세대 간 다문화가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온난화, 해양산성화, 그 다음으로 체감하는 것은 대기오염 등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배영근 환경변호사님께서 지금 대기오염, 접합 문제 등에 관여를 해주셨는데 미래에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영근 (환경 변호사)**
쉬는 시간에 잠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식.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서 그 동물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진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멸종 위기 종을 1, 2, 3급으로 나눠놓고 있는데 거기에 1급으로 있는 동물로는 호랑이, 표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호랑이와 표범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멸종 종입니다. 멸종 종을 위기 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차원의 1급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 중에 산양, 산에서 사는 양이 있습니다. 그 산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권역, 경북 북부 권역에 총 800여 마리 정도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산림이 파괴되면 산양도 멸종위기 종에서 멸종하는 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가 변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벼 등의 농작물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 종 한 종 멸종하다 보면 결국 지구상에 남은 생물종은 세 가지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종으로는, 첫째 인간, 둘째 쥐, 셋째 바퀴벌레를 꼽습니다. 세 가지 종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세 가지 종까지도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막거나 지연시키고, 조금 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식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계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환경이 훼손되고 기후가 변화하는 1차적인 큰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제가 말았던 사건 중에 주변 다른 도시에서 떨어진, 아파트 단지와 산만 있는 곳의 바로 옆의 산을 깎고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 주민들은 서로 인사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아직 폐쇄적인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주민들도 원래는 서로 모르고 지냈지만, 화학연구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관공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넣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뭉쳐서 아파트 안에서 충분한 이웃사촌이 되는 사례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사례입니다. 그 곳은 대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주변에서 반대편으로 가려면 돌아서 가거나 아파트 단지 안으로 관통해서 지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려면 미리 등록을 한 후 지나갈 때 마다 통행료를 2천 원씩 내도록 하는 사례를 보며 단지 안의 주민들은 과연 저렇게 하면서 얼마나 더 편하고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어느 범위, 범주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저는 이번 생은 예술가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술 하기 좋은 지역, 예술 하기 좋은 마을 또는 예술 하기 좋은 나날, 예술 하기 좋은 세계, 그 것이 제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은 계열을 가리지 않고 같은 구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창조적인 경계를 이룬다면, 창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유럽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회안전망을 통해, 특히 기본소득을 통해 보호받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다양한 창의적인 요소를 창조하는 공동체에 대해 배종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 종 현 (현대미술작가, 가족 보고서 참여 작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국가와 사회의 개입, 채무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한 경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낙오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봐왔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가 상당히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예술가의 경우, 집안에 미술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극구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대 진학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술을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다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밝히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험도 저는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엔 시간이 짧아서 힘들지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제도적 시스템이 많이 보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젊은 작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그러한 것들이 계속 확충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며, 작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늘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 때문입니다. 작가는 어떤 계층보다도 리스크가 강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장치들이 계속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을 확장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꿈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속가능한 미래공동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지속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변화에 노출되어 있고, 더군다나 후기산업사회를 겪고 있는 저희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통해 변화의 욕구들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핸드폰을 통해 수시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그럼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개념과 형태들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지속가능성 보다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속가능성이 아니고 연결 가능성, 내지는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란 선생님께서 하나의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이 아닌, 어떤 하나의 좋은 생각과 행동이 다른 확산의 가능성을 이루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계속 또 다른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우찬 팀장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동양의 눈, 서양의 눈'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지 않고 5분정도 보고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본 내용은 서양과 동양의 시각의 차이를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양은 단일 시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 다시 말해 유일자, 동일자, 나라는 존재가 바라본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원근법 투시가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선적인 인간적 접근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권용혁 교수님께서도 나라고 하는 단일자, 개인의 중요성에서 비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대에 철학자 중 특히 데카르트적 시각이 붕괴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셸 푸커가 말한 감시와 처벌에서 '판옵티콘', 그런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효율성의 극대화를 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감시자가 다수의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스템으로 발달한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수용자가 감시자가 저기에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저 곳에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고,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감시자, 정보 통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문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서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못했어, 대체 그 사람은 뭐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를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 극단적이고 너무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트롤 타워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시망을 켜놓고 있어도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는 것이고, 아무리 기술과 정보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감시망을 비껴가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컨트롤 타워가 굳건하게 잘 작동한다 하더라도 가능할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시와 통제가 문제가 아니라, 감시가 아닌 관심으로 관점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자 내지는 예술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류가 유지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미래학자들은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30년이 아마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도록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술가 분들은 직관과 통찰력이 발달하여 세세한 영역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플로어에서 말씀 하실 때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 중**

저는 박문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의 집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의 문화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합리적 개인이었으면 세월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디다. 관심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며, 핵심은 제대로 접근하는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통해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미 장악했다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합리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은 서구와 함께 발전하려고 한다면, 합리적 개인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너무 공동체주의의 유교적 문화에 젖어있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빠져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합리적 개인이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조그만 개울가에 앉아서 동네 장사 소리를 듣고, 고등학교 때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프리미어야구 아니면 보지 않습니다.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디지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핵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차원은 아니어도 지구 차원에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워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소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공동체는 합리적 개인이 재구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공동체가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직업공동체, 취미공동체, 다양한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관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시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발전시켜도 잠시입니다. 순간이 쌓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순간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숨 쉬는 자체로부터 '살기 위해서 원죄를 짓고 있구나. 주변을 희생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배려나 다른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한 선상에서 너무 옛날의 어떤 농경사회, 산업사회, 커뮤니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선생님께서 서구식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에서 근대사회 회형성에 기본이 되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을 강요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기에, 한참 젊은 세대

분들도 의견 개진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청 중**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김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한 이유는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타이틀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일의 공동체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예술 공부를 했는데 예술 공부를 하며 좋았던 것은 온전히 나 혼자로서의 뭔가를 할 수 있고, 개별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매력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라는 것이 말이 좋으면 공동체인 것이고, 나쁘게 보면 카르텔이 되며 배척 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시는 분은 교수이면서 작가를 하시는 분인데 모 지역의 시립미술관이 새로 생기면서 미술관 앞에 작품을 들여놓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청에서 수원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품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여, 교수님은 화가 나서서 전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재단 측에서 그 앞에 광장을 내주어 그 곳에 설치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공동체일 텐데 그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라는 가치가 오히려 나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은 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개별자로 쪼개져서 효율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조합됐다가 흩어졌다가 해야 하는데 가족이라는, 지역이라는, 한국, 세계라는 틀에 맞춰 공동체 단위를 꾸린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에 나와서 교수님과 많이 엮이게 되고 관급사업들, 공공입찰 사업들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관급사에 입찰을 받기 위해 평가위원들과의 사전접촉이 있는데, 그 사전 접촉에 지연, 학연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담합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라를 굴러가고 일들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체가 발전한다면 영세하는 업체들은 그 뒤를 밟아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며, 저는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새로 찾아서 해야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흥악하고 지저분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회의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공동체라는 것이 공동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으로서, 보다 더 개별자로서 흩어져야만 보다 더 내일의 공동체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선생님 말씀에 대해, 저는 가공씩 인간의 유적 한계, 호모 사피엔스 류의 유적한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구생태계의 한 층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를 만약 날달이 다 털어놓고 독립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을 유럽식으로 구성해놓고 그들의 대화와 토론과 수기로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세상의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한 생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꿔왔지만, 제가 저를 들여다봐도 중층적이고 모순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타자를 객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인류학자 또는 동물학자 분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동물학자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본 경우, 1차적으로 원래

생태계에서 인간은 상위 포식자 그룹이 아닌 중위권입니다. 그런데 지구역사의 46억년에서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인 만년의 기간 동안 포유류의 90%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빠른 진화가 아니라 차근차근 진화해 나아갔다면, 상위포식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포식자들은 4시간 이상 먹이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어나면 나머지 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상위포식자가 된 생명체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취해서 잡아먹을 뿐, 그것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취한 다음 나머지 생명체가 어떻게 된다하더라도 여유롭게, 넉넉히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상위포식자가 아닌 중위포식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쌓아 놓고, 무엇을 해도 늘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과연 서구 유럽에는 단합이 없는가, 그곳은 합리적인가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거꾸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힘입니다. 각성된 개인들의 자발적 연대로 모인 틀을 확보한다면 미래에는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더 이야기할 선생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 이 삭 (건축가, 에이코랩 대표)**
아까 선생님께서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신 부분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이라는 공동체의 범위든 학교출신이라는 공동체의 범위든, 범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개인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직하고 유일한 방법은 개개인이 성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어떤 공동체를 이루건 간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 자체가 옆에 있는 공동체를 잘 이해하게 되면 아파트 도로를 막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이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마음만 갖게 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만드는 데에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그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들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가적 차원에서든 작은 소규모에서든 해결해가면서 개개인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청 중**
정이사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동에 가면 이타미 준이 만든 화이트 큐브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오보에 힐스를 아실 겁니다. 제가 미술을 가르치려고 몇 번을 가기도 했습니다. 평균 주택가가 40억 정도 하는 집인데, 개 개인의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변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국가가 공공성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막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에는 자신들이 구매한 땅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상호협력 하는 관계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습이 문제인가 국가개입이 문제인가는 닭과 알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쓰시는 연남동에 건물과 같은 경우엔 공공성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사유재산적인 그런 형태입니까?

가족보고서
라운드테이블

내일의 공동체:
구성원이 풀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정 이 삭 (건축가, 에이코랩 대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가 또는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 **청 중**
과학으로 지속될 경우, 공동체 개인으로만 본다면 절대로 좋은 재료를 만들지 못하겠죠?

● **정 이 삭 (건축가, 에이코랩 대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남동의 집 같은 경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 곳은 일단 제 집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갖는 건물이고, 그 개인은 철저히 본인이 회사를 그만뒀을 시점을 대비해서 불로소득을 취하고자 집을 사서 상가로 변형시켜서 그걸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한 집입니다. 그건 어떤 한 개인의 완벽한 이기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기심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집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남동의 수많은 적벽돌집들이 그 동네에 계시는 집장사분들에 의해서 마치 딱 주무르듯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자면 약간은 무책임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파리를 걸으며 파리에 있는 아주 균일하고, 반복적이고 정리되어있는 풍경을 보면서 부러워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가치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연남동 다세대 뒷골목에 있는 적벽돌 건물들의 일반적인 형상은 어떤 계획가가 만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슷한 형상을 합의하는 등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의 군상입니다. 그런 것들에 나름의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맥락을 무시하면서, 부수고 짓는 것에 능숙한 것이 좋지 않아 보

였습니다. 그 집을 다시 누군가가 또 고친다 하더라도, 기존의 것이 남으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치는 방식은 내일을 고민하지 않는 고치는 방식입니다. 계속 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지속성을 말씀 드렸던 것이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속성으로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청 중**
저는 원래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미술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개방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좋아서 제가 미술을 계속 했습니다. 구달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구달 박사의 접근 방식은 현대과학의 접근방식과 비슷합니다. 현대 과학은 무조건 증명의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으로 수학적 증명이 이론적으로 성립한 후 임상적인 실험이 완료되어야만 정확한 학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인원 연구의 경우, 구달 박사 획기적인 방법은 유인원과 감성적으로 교류하는 연구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물리학 전공자로서, 지금 서울에서 하는 ‘불확정성의 원리’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젠베르크로 붙어 있는 모든 방정식들이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건축이든, 동물 활동이든 인간과 타자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맞지 않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김 혜 란 (KARA 비전 연구소장)**
저는 옥수수와 대화하는 바바라 매클린 특같은 경우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어느 날 약콩 크기만큼 옥수수의 변화가 눈에 보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감성입니다. 감성은 연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 감성은 여성적인 것, 이런 식의 이분화된 구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청 중**

저는 지금 고대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이삭 선생님과 실장님 등 좋은 분들을 제대로 초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재능기부라는, 각 지역할 말은 분야에서 공동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나눠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이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에서 어느 지역의 소속인가를 구분 짓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의 역할도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저에게 자부심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지식 방면으로는 발전하는데, 이 지식을 실생활에서, 이웃과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이론과 생활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재밌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서로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등, 저는 떡 만드는 법을 배우면 이웃들에게 주는 것이 재밌습니다.

정이삭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이 주는 즐거움, 나누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자,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고대병원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임신한 선생님이 참 예쁘다.’, ‘나는 떡을 잘하니까 올해에 떡 100개를 만들어서 저분들에게 주자’ 또는 소아과 병원에 있는 아이가 먹는 것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분에게 찰밥을 해드려야겠다.’ 그런 게 보이다 보

면 즐겁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뭐든지 즐겁습니다. 내가 속해있는 곳에서 내 역할을 거창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에서도 개인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뭐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각 분야의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니,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대학 재학생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한 분 의견 개진해주신 다음, 마무리로 가족 보고서 팀 큐레이터인 김지희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 **청 중**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대학교 예술학과에서 4학년 재학 중인 우민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너무 유익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정이삭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공동체를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만 저희가 맞 이해야 할 미래의 공동체가 바람직한 미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적인 부분은, 저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고 나이가 좀 있는데 아직 학부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좀 어렵게 보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버릇없다’, ‘예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친구들을 보면, 다원주의, 다양성을 말하지만 “나를 먼저 이해해줘, 그럼 내가 널 이해할게”의 식입니다. 제가 아는 다원주의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야 나를 알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런 친구들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청년세대가 안타깝습니다. 청년세대가 지금 이렇다면 이 세대들이 나중에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미래공동체가 이루어질까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만 이해받으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연 선생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여쭙보겠습니다.

● **정 주 연 (인권 교육 센터 ‘들’ 상임활동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말씀 중,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양성만 옹호하는 것으로는 편견이나 경계를 깨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객토향 시키는 과정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나도 다양성, 너도 다양성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존하고 다원화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문제가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내 안의 차이들이 어떻게 소수성으로 등장하게 되는가를 끊임없이 포착하는 감각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도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인권을 강의해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강의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억하고 있었던 인권의 기억을 꺼내는 것인데, 그것은 감각을 꺼내서 기억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차별 받았대, 이 사람이

이런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자신이 겪은 차별의 경험으로 차별을 읽어내어 문제의 지점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끈 읽기 등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연결 가능성들을 계속 확대해가는 것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의 경험을 끌어내서 그 경험 안에서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 원 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김지희 큐레이터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 지 희 (‘가족 보고서’ 전시 기획 큐레이터, 경기도미술관)**

저도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전시의 주제가 가족으로 정해지면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관람하시는 분들이 전시를 보고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앞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등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공동체라는 것도 관심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공동체나 가족도 모두 필요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동물, 모든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더 나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으로 동물을 키우고 있고, 2013년도에 경기도미술관에서 동물에 관련된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김혜란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혐오 동물이라고 칭하며 동물을 학대하는, 새끼 고양이 밥에 독약을 타 죽이는 등의 얼굴 찌푸려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개도를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혜란 (KARA 비전 연구소장)

학대의 수준과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교육은 다릅니다. 고소·고발 또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드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제자리에 방사를 시켜서 개체수가 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도 한 도시로 몰리면 힘들 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 통제와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 개념에서 동사무소랑 연계해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 교육들은 근거를 갖고 진행하는 교육이기에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교육들은 어떠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이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결국은 이런 학대, 차별, 혐오는 그 뿌리가 사실 타자를 인정하지 않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강색인 사람에게 왜 빨강 색이냐고 질문을 던지기에, “네, 전 빨강 색이에요”라는 대답을 하면, “그런데 왜 빨강 색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학을 공부할 때, 저의 모든 글 속의 ‘여성’의 자리에 ‘동물’을 집어넣었더니 모두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처지에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의 글을 보시면, 해당 전시는 실제 한국에서의 반려동물의 처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사회에는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에서부터 내일이면 잡아먹힐 처지에 있는 동물까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살장을 가보면 100만 원이 호가하는 보더콜리부터 영국의 점박이, 비쩍 마른 개까지 엄청난 품종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개들은 모두 식용견입니다. 가족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이전에 내부 구성원들이 이들의 연속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정해주는 제도적인 장치 등이 전제되어있지 않으면, 동물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개식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난관이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답변을 드리자면,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인이 미워서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사례, 내 아이를 때리기 전에 내 아이가 돌보는 강아지를 먼저 때리는 사례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집안에 있을 경우, 동물은 항상 폭력의 최하위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위기 관계 속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의 개와 동반종 선언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교육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자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장 시간동안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라운드테이블은 이것으로 하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
제가 우스갯소리 좀 하자면, 저 마지막 대상 상품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신 주세균 작가가 만든 아트프로덕트인데, 저 아트 상품의 제목이 신념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신념이란 글자를 돌려서 기형의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저 그릇은 이번 전시의 상징성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으며, 어떻게 믿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술관에서 가족이란 소재를 선택하여 지금 공동체라는 주제에까지 와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근현대사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이 압축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이 관념과 개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어, 우리가 계속 주제로 삼고 있는 가족, 국가, 국가라는 단어에서 그 층위가 굉장히 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국가’라는 단어를 절대군주제를 이어받아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의 의미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분은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모여 스스로 주체가 되는, 이상적인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층위가 다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술관이 이 전시를 통해서 수행한 역할은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있어 가장 바로미터인 가족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각자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고, 또 전체를 모아봤을 때의 의미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보다 미래적인, 보다 성숙된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코 이 문제를 완결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에 대해 생각을 거듭하며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시대를 아주 명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숙된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경기도미술관
교육자료집

2/2권 라운드테이블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원기

편집인

경기도미술관장 최은주

발행일

2017. 12. 29

총괄

권영기(기획운영팀장), 박우찬(학예팀장)

기획

김지희, 최혜경

진행

이승열, 박소현

지원

박분수, 최기영, 윤가혜, 김윤서,
방초아, 이지원, 변은정, 한정원

디자인 진행

장효진

디자인

디자인올다

참여자

권용혁(기조발제), 정이삭, 배영근, 정주연,
김혜란, 배중현(토론)

Special thanks to 양원모(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 경기도미술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이 책은 경기도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기록과 보존을 위하여
경기도미술관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내용은 경기도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글과 그림을 사용하시려면 미리 경기도미술관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